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보도자료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www.mke.go.kr

2012년 5월 8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정보통신정책과장 나승식(02-2110-4801), 사무관 김순권(4802)

4월 IT수출 120.4억불(△9.4%), IT수지는 57.2억불 흑자

– 조업일수 감소로 수출규모는 축소하였으나, 컴퓨터 및 주변기기, 모바일 전자부품(시스템반도체, PCB, 2차전지 등) 수출 증가세는 회복 또는 지속

□ 4월 IT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9.4% 감소한 120.4억불, 수입은 5.3% 감소한 63.1억불, 수지는 57.2억불 흑자로 잠정 집계

○ 대외적으로 유럽 재정위기, 중국 경기 둔화 우려, 느린 미국 경제 회복 등 글로벌 불확실성 지속, 대내적으로 선거 등 조업일수 감소(△1.5일, 7~8억불 감소 효과)로 규모는 축소

* IT수출증감률(%) : ('11.4) 5.5 → ('12.1) △12.2 → (2) 4.5↑→ (3) △7.0→ (4) △9.4

□ 시스템반도체* 2차전지, PCB 등 모바일 전자부품과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 호조로 전체 무역수지 흑자(21.5억불)의 두 배가 넘는 IT무역 수지 흑자 시현

* 시스템반도체 수지(억불) : ('08)△71 →('10)△23.5 → ('11) 8.8 → ('12.1~4) 8.9

IT산업 및 전체산업 수출입 동향

(단위 : 억불, % : 전년 동월대비)

구 분		2012년		2011년	
		4월P	1~4월P	4월	1~4월
수출	전체 산업	462.6 (△4.7)	1,812.0 (0.9)	485.4 (23.5)	1,795.2 (27.9)
	IT 산업	**120.4 (△9.4)**	**475.0 (△6.4)**	**132.8 (5.5)**	**507.5 (8.0)**
수입	전체 산업	441.1 (△0.2)	1,773.8 (5.5)	441.9 (24.4)	1,681.4 (25.8)
	IT 산업	**63.1 (△5.3)**	**253.8 (△5.1)**	**66.7 (11.1)**	**267.4 (16.1)**
무역수지	전체 산업	21.5	38.2	43.5	113.9
	IT 산업	**57.2**	**221.1**	**66.2**	**240.1**

□ 이에, 지식경제부는 「IT수출동향 실무점검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IT수출동향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예정

* 1차 IT 수출동향 실무점검 회의 : 5월2(수), 정보통신정책과장 주재, IT업종별 단체 및 유관기관 참석(KOTRA, NIPA, KEA 등 8개 기관 임원급 또는 간부급)

< 붙임 1 > 품목별 수출입 실적

< 붙임 2 > 동향 세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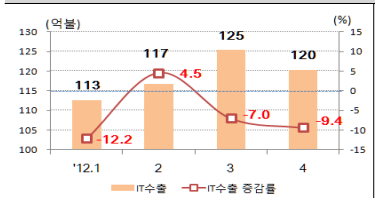
< 붙임 1 > 품목별 수출입 실적

1. 수출 실적

□ 품목별 현황

IT 전체 및 품목별 수출 추이

IT수출 추이



'12. 4월 수출 증감 품목

구분	수출액	증감률	비중	비고
시스템반도체	17.3	25.7	14.3	증가지속
컴퓨터 및 주변기기	6.1	2.7	5.1	증가
2차전지	4.0	6.6	3.4	전환
PCB	3.1	19.9	2.6	증가지속
TV	5.4	△13.8	4.5	감소축소
메모리반도체	15.4	△30.8	12.8	감소
휴대폰	14.6	△36.9	12.1	확대

【반도체 : 38.4억불, △7.7%】

- (시스템반도체 : 17.3억불, 25.7%↑) 모바일AP, 멀티미디어 프로세서 등 수출 호조로 전년 동월대비 32개월 연속 수출 증가 기록

  * 시스템반도체 세계시장 점유율(%, iSuppli) : ('09) 2.4→ ('10) 2.8→ ('11^{p}) 4.0
  * 시스템반도체 수출증가율(%) : ('11) 24.0 →('12.1) 33.4 →(2) 47.3 →(3) 31.3 →(4) 25.7

- (메모리반도체 : 15.4억불, △30.8%) 일본, 대만 경쟁사의 경영 여건악화 반사이익으로 D램 가격은 지난달에 비해 회복됐으나, 전년대비 단가(△45.7%)는 여전히 낮아 수출 감소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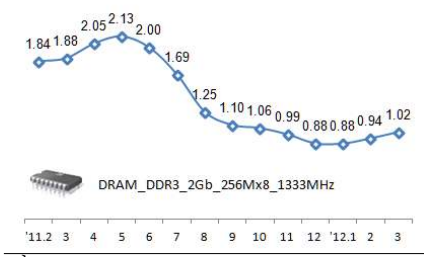
  * 메모리 수출증감률(%) : ('12.1) △32.5 →(2) △19.1 →(3) △24.9 →(4) △30.8
  * 세계 3위 D램 업체인 Elpida(日)는 파산보호 신청(2.27)에 따른 공개 매각이 추진 중이며, 대만 1위 난야, 이노테라 등도 9분기 연속 적자 등 경영 여건 악화

- 북미 반도체장비 BB율(Book to Bill ratio, IT수출에 3~4개월 선행) 개선, 인텔 3세대 코어 프로세서 Ivy Bridge 출하('12.4월), 하반기 Window 8 출시 등으로 향후 반도체 단가 회복 및 업황 개선이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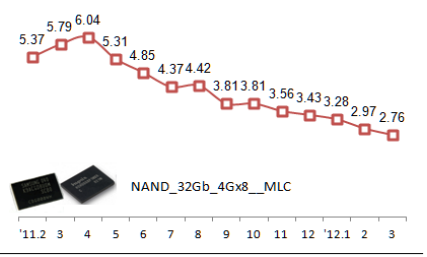
  * 반도체 경기 선행지표인 북미반도체 장비 BB율은 북미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의 최근 3개월 간 평균 수주액을 출하액으로 나눈 값으로 1을 넘으면 경기 상승을 의미
  * 북미 반도체 장비 BB율(1이상이면 호황) : ('12.1) 0.96→(2) 1.01 →(3) 1.13

메모리반도체 가격 동향

D램



낸드플래시



자료 : DRAMeXchange, 2012.4

【디스플레이 패널 : 25.9억불, △1.6%】

- (LCD패널 : 23.0억불, 0.5%↑) 유로 2012, 런던 올림픽 등 스포츠 특수 및 3D TV, 고해상도 패널 수요 증가로 LCD 패널은 증가세 회복

  * 수출증가율(%) : ('12.1) △12.7 → (2) △1.7 → (3) △5.8 → (4) 0.5

- (패널 부분품 : 2.9억불, △13.5%) 국내 주요 세트업체의 BMS (Backlight Module Set : TV 세트와 패널 부분품, 패널을 TV조립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생산라인) 공정 확대로 패널 부분품 수출 감소

  * 수출증가율(%) : ('12.1) 2.5 → (2) 23.0 → (3) △10.6 → (4) △13.5

【휴대폰 : 14.6억불, △36.9%】

- 휴대폰 및 스마트폰은 세계 시장점유율(출하량) 1위를 차지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 국내 휴대폰 업체인 삼성전자는 '12년 1분기 스마트폰, 4G LTE 폰 시장에서 사상 최대성과를 거두며 휴대폰(MS : 25%), 스마트폰(MS : 31%) 세계 1위 업체 등극(SA)
  * '12.1분기 스마트폰 점유율 전망(포브스 재인용, %) : (삼성) 28.2, (애플) 22.4, (Nokia) 12.5, (RIM) 7.6, (HTC) 4.5, (LG) 3.7, (국내업체 점유율) 31.9

- 국내 업체의 해외 생산 확대('11.1Q : 69% → 4Q : 80.1%)에 따른 국내 휴대폰 생산 감소로 수출은 5개월 연속 30%대 감소

【컴퓨터 및 주변기기 : 6.1억불, 2.7%】

- 휴대용 컴퓨터, SSD(Solid State Disk) 등은 수출 호조에 힘입어 증가세 회복

- **(컴퓨터 : 1.0억불, 18.5%↑)** 데스크톱 PC 수출은 감소했으나, 노트북 PC 등 휴대용 컴퓨터 수출은 두 자릿수 증가

- **(주변기기 : 4.4억불, 6.7%↑)** SSD(Solid State Disk) 등 보조기억장치(1.5억불, 14.7%↑), 모니터(1.6억불, 2.7%↑) 등이 수출 증가 견인

【TV : 5.4억불, △13.8%】

- (LCD TV : 0.8억불, 9.2%↑) LED TV 등 프리미엄 제품 수출 확대로 4개월 연속 증가세

- (PDP TV : 0.1억불, △57.7%) PDP TV는 글로벌 수요 감소로 큰 폭의 하락세 기록

  * 세계 PDP TV 전망(DisplaySearch) : ('11) 113억불, △13.2% → ('12) 101억불, △10.4%

- (TV부분품 : 4.5억불, △14.2%) 중국, 중남미, 동유럽 등 해외 주요 생산거점 向 TV부분품 수출 둔화

  * 주요 생산거점向 TV수출 증감률(%) : 멕시코(△27.3%), 폴란드(△35.0%), 헝가리(△7.1%)

【PCB : 3.1억불, 19.9%】, 【2차전지 : 4.0억불, 6.6%】

- 글로벌 모바일 부품 수요 확대로 PCB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30개월 연속 증가, 2차전지는 리튬이온(1.8억불, 1%↑), 리튬폴리머 전지(0.5억불, 105%↑) 수출 호조로 증가 전환

□ 국가별 수출 현황

○ **(국가별)** 미국(13.2억불, △29.0%), 일본(5.5억불, △10.9%), EU(10.8억불, △22.8%) 등 주요 국가 수출은 감소한 반면, 중국(홍콩 포함, 61.2억불, 1.2%↑), ASEAN(12.1억불, 7.5%↑) 등은 증가세 지속 및 회복

'12년 4월 IT산업 주요 국가/품목별 수출

(단위 : 억불, % : 전년 동월대비)

구 분		반도체	디스플레이패널	휴대폰	IT 전체
전체		38.4 (△7.7)	25.9 (△1.6)	14.6 (△36.9)	120.4 (△9.4)
	중국(홍콩포함)	21.0 (△6.0)	19.0 (0.2)	3.8 (△4.2)	59.7 (1.2)
	미국	2.2 (△10.1)	0.1 (△58.7)	5.4 (△47.2)	13.2 (△29.0)
	일본	2.3 (△5.1)	0.1 (△78.4)	1.1 (36.8)	5.5 (△10.9)
	EU	1.6 (△32.6)	3.3 (△3.9)	1.9 (△8.0)	10.8 (△22.8)

2. 수입 실적

□ IT수입은 전년 동월대비 5.3% 감소한 63.1억불

○ 시스템반도체(15.7억불, 5.9%↑),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정용기기(1.3억불, 28.0%↑) 등의 수입은 증가한 반면,

○ 국내 업체의 국내 시장 점유율 증가 등 경쟁력 강화로 휴대폰(2.1억불, △49.7%), 컴퓨터 및 주변기기(7.8억불, △2.4%) 수입은 감소

  * 국내기업 내수시장 점유율(Gartner, '10.4Q→'11.4Q, %) : (휴대폰) 80→84, (PC) 52→62

3. 향후 전망

○ '12년 IT수출은 유럽재정 위기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PC, TV 수요 감소로 메모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의 글로벌 단가 하락, 국내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휴대폰 및 스마트폰 해외생산 확대로 한 자릿수 감소를 기록 중이나,

○ 런던올림픽 등 스포츠 특수,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일본, 대만 경쟁업체의 경영악화에 따른 반사이익, 시스템반도체 등 HW+SW 융합형 제품 수출확대로 향후 수출여건은 점차 개선될 전망

< 붙임 2 > 동향 세부자료

목 차

1.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 9

2. 주요 국가별 수출 동향 25

3. 수입 및 수지 동향 28

4. 2012년 4월 IT산업 수출입 통계(잠정) 30

1.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

1 휴대폰(부분품 포함)

1) 시장 환경

▶ '12년 휴대폰 시장은 전년대비 7.2% 성장한 19억 220만 대의 시장을 형성할 전망

○ 중국 등 신흥시장은 8.4% 성장한 14억 7,756만대를 기록, 규모 및 성장률에서 선진시장(4억 2,463만 대, 3.2%↑)을 압도

○ 신흥시장의 비중은 '11년 76.8%에서 올해 77.7%로 0.9%p 상승하며 전체 휴대폰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이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업체 간 경쟁도 가열

※ 중국은 스마트폰과 피처폰 모두 가장 많이 판매되는 지역으로 휴대폰 시장의 최대 격전지로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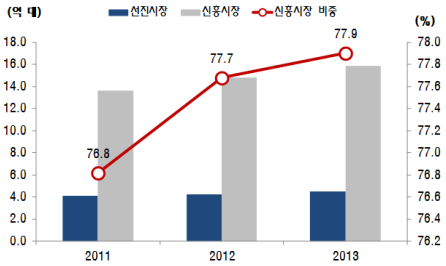
▶ (스마트폰) '12년 1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아시아·남미 등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41.1% 성장한 1억 4,530만대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

○ 삼성전자(4,450만대, 253%↑)와 Apple(3,510만대, 89%↑)이 전체 스마트폰 시장의 55%를 차지한 반면, Nokia(1,190만대, 50.8%↓), RIM(990만대, 28.3%↓), HTC(680만대, 29.2%↓) 등은 부진한 실적을 기록 ➡ 삼성전자·Apple로 쏠림현상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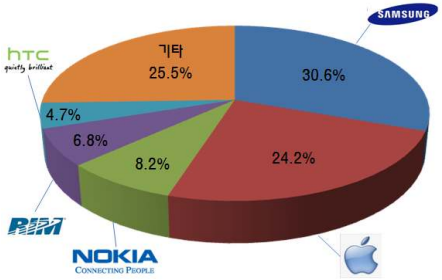
※ 한편, LG전자가 540만 대(31.7%↑)의 스마트폰 판매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중국의 화웨이 840만 대(268%↑), ZTE 560만 대(300%↑)가 세 자릿수의 성장세를 기록하며 급부상

국내 휴대폰 시장 전망 및 1분기 업체별 실적

< 휴대폰 시장 전망 >



< '12.1Q 스마트폰 업체별 점유율 >



자료 : Gartner, 2012.03 / SA, 2012.04

2) 수출 여건

▶ 국내 휴대폰 3사는 '플래그십' 모델을 전격 출시하며 스마트폰 시장을 선도

○ 5월 선보이는 삼성전자 갤럭시S3, LG전자 D1L, 팬택 베가레이서2 등 각 사의 차기 전략 모델은 LTE 등 하반기 스마트폰 시장에서 국내업체의 입지를 강화할 전망

※ '12년 1분기 삼성전자의 전체 휴대폰 출하량은 9,584만 대(스마트폰 4,450만 대)를 기록하며, 전체 휴대폰 시장에서 1위를 기록하였던 Nokia의 전체 휴대폰 출하량 8,270만대(스마트폰 1,190만 대)를 처음으로 추월

○ 한편, 하반기 Apple의 아이폰5(3분기 예상)출시와 중국 로컬업체(화웨이, ZTE)의 급격한 스마트폰 경쟁력 확보는 국내업체가 경계해야할 주요 변수로 부각

국내 휴대폰 3사 플래그십 스마트폰 주요 특징

구 분	SAMSUNG	LG	PANTECH
제품명	갤럭시S3	D1L(정식명칭 미정)	베가레이서2
AP	엑시노스 1.4㎓ 쿼드코어 프로세서	퀄컴스냅드래곤S4 1.5㎓듀얼코어 프로세서	퀄컴스냅드래곤S4 1.5㎓듀얼코어 프로세서
네트워크	3G, 4G LTE 모델 각각 출시 추정	4G LTE	4G LTE
디스플레이	4.8인치 HD 슈퍼아몰레드플러스	4.8인치 True HD IPS LCD	샤프제 4.8인치 LCD
운영체제	아이스크림샌드위치	아이스크림샌드위치	아이스크림샌드위치
발표일	5월 3일(영국 런던)	5월 중	5월 3일(서울)
국내 시판	6월 추정	5월 중	5월 10일
기타	-	무선충전지원	-

자료 : 한국경제, NIPA, 2012.04.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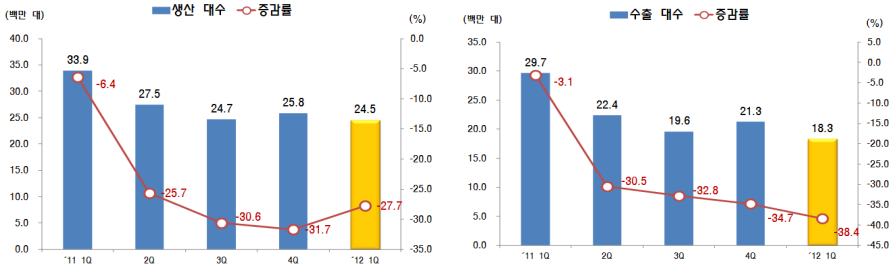
▶ 스마트폰의 해외생산 확대로 휴대폰 생산과 수출은 5분기 연속 감소

○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2년 1분기 국내 휴대폰 생산 2,450만대(27.7%↓), 수출 1,829만 대(38.4%↓)를 기록, '11년 1분기 이후 생산과 수출의 감소세 지속

○ 국내 업체는 '규모의 경제 확보 → 가격경쟁력 제고 → 시장 대응능력 제고 → 시장점유율 확대'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공격적으로 해외 생산물량 확대

※ 해외생산 비중('11년 기준, %) : 휴대폰 77.0('11.상 72.9→'11.하 80.6) / 스마트폰 58.9('11.상 38.3→'11.하 70.8)

국내 휴대폰 생산 및 수출 추이(대수 기준)



자료 : 통계청, 2012.05

3) 수출 동향

▶ 4월 휴대폰(14.6억불, △36.9%) 수출은 갤럭시 노트 등 High-end 스마트폰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피처폰에 이어 스마트폰의 해외생산 확대가 지속되면서 8개월 연속 감소

○ 국내 업체는 프리미엄 및 보급형 스마트폰 공략을 통해 세계 1위에 올랐으나, 이러한 과정에서 스마트폰의 해외 생산을 급격히 확대하는 전략을 구사해 국내 생산 기반 수출은 지난해 9월 이후 감소 추세

○ 스마트폰(8.5억불, △33.5%)과 피처폰(0.8억불, △70.9%) 모두 부진

▶ (지역별) 일본(1.1억불, 36.8%)을 제외한 중국(홍콩 포함, 3.8억불, △4.2%), 미국(5.4억불, △47.2%), EU(1.9억불, △8.0%) 등 주요 시장 모두 부진

휴대폰(부분품 포함) 수출 추이

(단위 : 억불, % : 전년 동월대비)

구분	'11.4	5	6	7	8	9	10	11	12	'12.1	2	3	4
휴대폰 (부분품 포함)	23.1 (31.4)	24.4 (38.7)	22.1 (17.7)	21.7 (15.0)	20.7 (10.0)	20.3 (△3.5)	19.1 (△28.0)	18.8 (△29.9)	15.1 (△32.5)	14.4 (△39.3)	13.3 (△32.5)	14.9 (△31.2)	14.6 (△36.9)
스마트폰	12.8 (391.9)	13.3 (304.0)	10.7 (97.6)	8.3 (45.3)	7.3 (8.4)	9.1 (2.3)	9.9 (△14.7)	10.5 (△17.1)	8.0 (△27.6)	8.6 (△14.7)	7.3 (△26.3)	8.5 (△8.3)	8.5 (△33.5)
피처폰	2.6 (△68.0)	2.9 (△55.0)	2.9 (△56.0)	2.5 (△53.7)	1.8 (△57.9)	2.0 (△46.6)	2.6 (△58.7)	2.1 (△63.5)	1.6 (△61.1)	0.8 (△80.9)	1.0 (△69.2)	0.9 (△73.8)	0.8 (△70.9)
부분품	7.7 (12.4)	8.2 (5.2)	8.6 (25.5)	10.9 (41.4)	11.6 (47.7)	9.3 (9.0)	6.7 (△23.8)	6.2 (△25.6)	5.4 (△23.3)	5.0 (△46.6)	5.1 (△24.4)	5.5 (△39.3)	5.3 (△31.1)

2 반도체(메모리반도체, 시스템반도체)

1) 시장 환경

▶ 2012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당초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2.2% 성장을 전망했으나, 스마트 단말 등 시스템반도체 수요 확대로 4.0% 성장으로 수정 전망

○ (메모리반도체)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에도 불구하고, PC시장 둔화와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반도체 가격하락으로 7%대 성장에 머물 전망(소폭 하향 조정)

○ (시스템반도체) 모바일기기용 반도체를 중심으로 4%대의 완만한 성장세 기대

<반도체 세계 시장 수정 전망>

구분	세계 시장 성장률				비고	당초전망
반도체 전체	('11) 3,040억불	1.6%↑	→	('12) 3,161억불	4.0%↑	⇧	2.2%
메모리반도체	('11) 611억불	△9.6%	→	('12) 654억불	7.0%↑	⇩	7.9%

자료 : Gartner, 2012.03, 2011.12

▶ 반도체 경기 선행지표인 북미반도체장비 BB율(book to bill ratio) 개선, 하반기 Window 8출시, 인텔 3세대 코어 프로세서 Ivy Bridge 출시 등으로 반도체 업황 개선은 지속될 전망

○ 북미반도체장비 BB율(IT수출에 3~4개월 선행)이 2월 1.03에서 3월 1.13로 상승해 반도체산업 회복이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

※ BB율은 북미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의 최근 3개월 간 평균 수주액을 출하액으로 나눈 값으로 1을 넘으면 경기 상승, 1을 하회하면 경기 둔화를 의미

○ 인텔의 3세대 코어 프로세서 Ivy Bridge 출시(22나노 공정 및 3D tri-gate 트랜지스터 기술을 적용)는 하반기 Window 8 출시와 맞물려 울트라북 등 PC 수요 회복 및 메모리 반도체 수요 창출에 기여할 전망

▶ 일본, 대만 등 경쟁국의 실적 악화 지속으로 국내 업체와의 격차 확대

○ 세계 3위 D램 업체인 Elpida(세계시장점유율 : 13.5%)는 일본 대지진, 태국 홍수에 따른 세계 PC생산 차질, 엔고 등의 영향으로 법정관리 신청(2월27일)을 단행

○ 대만 1위 난야와 이노테라는 각각 1분기 영업손실 86.5억 대만 달러(약 3,350억원), 39.8억 대만 달러(약 1,540억원)로 9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재무 상태 악화

○ 이에 따라 일본, 대만 등 경쟁 업체의 보수적인 설비투자로 반도체 업황 개선이 예상되며 국내 업체와의 기술 격차는 더욱 확대될 전망

주요 메모리반도체 업체 분기별 실적

(단위 : 조원, 대만 백억불, 백억엔, 십억불, %)

구 분		2011				2012
		1Q	2Q	3Q	4Q	1Q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매출액	9.2	9.2	9.5	9.2	8.0
	영업이익	1.6	1.8	1.6	2.3	0.8
	이익률	17.9	19.5	16.8	25.2	9.5
SK하이닉스	매출액	2.8	2.8	2.3	2.6	2.4
	영업이익	0.3	0.4	△0.3	△0.2	△0.3
	이익률	11.6	16.2	△12.1	△6.6	△10.9
Elpida	매출액	9.6	6.4	6.0	N.A.	
	영업이익	△0.4	△4.5	△4.4		
	이익률	△4.0	△69.7	△73.2		
마이크론	매출액	2.3	2.1	2.1	2.1	2.1
	영업이익	0.2	0.2	△0.1	△0.1	△0.1
	이익률	7.9	11.1	△2.4	△3.9	△6.9
난야	매출액	1.1	1.1	0.7	0.7	0.9
	영업이익	△0.8	△0.6	△1.0	△0.9	△0.9
	이익률	△71.2	△56.6	△134.5	△127.4	△98.3
이노테라	매출액	9.6	10.2	8.9	8.7	7.9
	영업이익	△3.8	△3.5	△6.9	△5.7	△4.0
	이익률	△39.4	△34.3	△77.3	△65.5	△50.3

주) 증감률은 전년 동기대비, Elpida는 '11년 4분기 실적부터 공시자료 미공개
자료 : 각사 IR자료

2) 수출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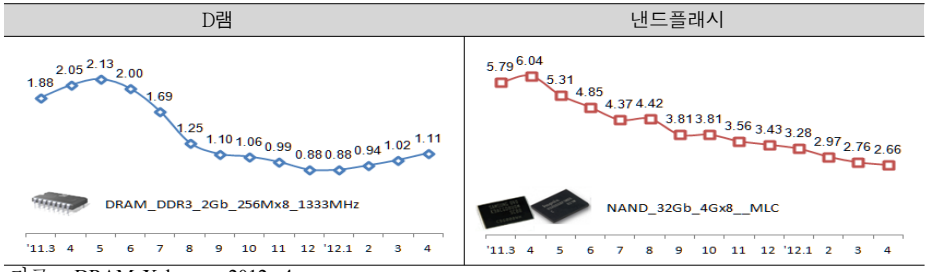
▶ 글로벌 경기 침체와 공급과잉으로 낸드 가격 하락세가 지속된 반면, Elpida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D램 단가는 반등세 지속

○ 메모리반도체 공급과잉 상태에서 발생한 태국 홍수 여파로 DDR3 2Gb 256M×8 1333㎒ 고정거래가격은 0.88달러에서 횡보했으나,

- Elpida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라 D램 가격은 반등했으며, 향후 울트라북 등 글로벌 PC 수요 회복으로 1.11달러로 점차 회복

○ 낸드플래시 가격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기기 중심의 수요확대에도 불구하고 업체 간 미세공정 전환에 따른 공급물량 증가로 가격 하락세 지속

메모리반도체 가격 동향



자료 : DRAMeXchange, 2012. 4.

3) 수출 동향

▶ 4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7.7% 감소한 38.4억불

○ HW+SW 융합형 핵심 부품인 시스템반도체(17.3억불, 25.7%↑)는 멀티미디어 프로세서, 모바일AP(Application Processor) 수출 호조로 32개월 연속 증가

○ 메모리반도체(15.4억불, △30.8%)는 Elpida 파산 신청이후 D램 단가가 회복세이나, 전년대비 단가(D램: △45.7%, 낸드: △56.0%)는 여전히 낮아 수출은 두 자릿수 감소

반도체 수출 추이

(단위 : 억불, % : 전년 동월대비)

구분	'11.4	5	6	7	8	9	10	11	12	'12.1	2	3	4
반도체	41.5 (△0.6)	41.7 (△4.8)	42.1 (△3.8)	39.7 (△14.0)	41.1 (△13.3)	45.9 (△3.7)	43.5 (△4.5)	40.8 (△1.3)	42.8 (0.7)	37.7 (△8.1)	38.8 (6.2)	43.1 (△3.6)	38.4 (△7.7)
메모리	22.2 (△9.6)	22.1 (△15.3)	21.3 (△15.7)	18.2 (△31.1)	17.4 (△37.6)	18.6 (△30.0)	18.1 (△26.0)	17.3 (△14.4)	16.1 (△24.9)	14.7 (△32.5)	15.2 (△19.1)	17.6 (△24.9)	15.4 (△30.8)
D램	12.5 (△22.2)	12.5 (△28.7)	12.2 (△27.0)	10.1 (△43.3)	9.7 (△48.3)	9.5 (△45.5)	8.9 (△45.5)	8.5 (△33.1)	8.7 (△30.4)	8.0 (△30.8)	8.1 (△26.9)	9.7 (△24.1)	8.8 (△29.4)
낸드	2.9 (13.9)	3.2 (34.8)	2.4 (1.3)	2.6 (8.4)	2.7 (9.4)	2.9 (28.2)	2.9 (35.9)	2.7 (18.6)	2.5 (△0.6)	1.9 (△22.1)	1.6 (△27.4)	1.6 (△41.8)	1.4 (△50.2)
시스템 반도체	13.7 (11.7)	14.4 (11.0)	15.2 (15.0)	15.9 (12.8)	17.4 (22.3)	21.3 (39.5)	20.3 (34.8)	18.9 (21.2)	21.4 (39.1)	18.5 (33.4)	18.0 (47.3)	19.9 (31.3)	17.3 (25.7)

3 디스플레이 패널

1) 시장 환경

▶ 2012년 세계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은 전년대비 17.9% 증가한 1,285억불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일본, 대만 등 후발 주자의 견제 심화 예상

○ 대형 LCD 패널 시장은 '11년 862억불 대비 12.3% 감소한 756억불을 기록하였으나, 3D 패널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비중 확대, 아날로그 방송 중단에 따른 수요 기대, 런던 올림픽 등의 스포츠 이벤트 등으로 '12년 850억불 규모로 회복 전망

※ '11년 4분기 대형 LCD패널 국가별 시장점유율(DisplaySearch,'12.2) : 한국(56.3%), 대만(30.4%), 대만(9.2%)

○ 중소형 LCD 패널 시장은 스마트폰 및 울트라북의 점유율 확대로 시장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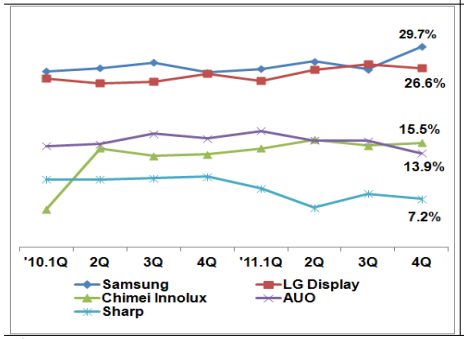
- 일본은 소니, 도시바, 히타치의 통합 법인인 재팬디스플레이 출범('12.4월)을 통해 '12년 2분기 이후 중소형 LCD 패널 및 OLED 시장에서 국내 업체와의 경쟁이 심화될 전망

※ 중소형 패널 시장 규모(억불, 전년 대비) : ('10) 217, 12.4%↑ → ('11) 254, 17.1%↑→ ('12) 309, 21.6%↑

※ 현재 소니, 도시바, 히타치 등 3사의 중소형 LCD패널 점유율은 18%로 SMD의 점유율 22%에 못 미치며, 재팬디스플레이 점유율은 3사 간 기술방식 차이 등으로 '12년 2분기 점유율은 다소 하락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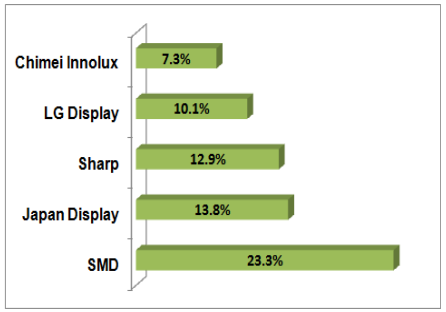
주요 업체별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 점유율

<대형 LCD 패널>



자료 : DisplaySearch(2012.2)

<중소형 LCD 패널(12. 2Q)>



자료 : DisplaySearch(2012.4)

▶ 지난 1분기 전 세계 AMOLED 시장규모는 14억 8807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0% 성장

○ 2007년 SMD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양산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매년 연평균 100%를 상회하는 성장세를 기록

○ 특히, 7월로 예정되어 있는 삼성디스플레이 3인방(삼성디스플레이,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에스엘시디)의 합병은 한계 업종인 LCD 사업 비중을 줄이고 차세대 유력업종인 OLED 사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함으로 해석

※ AMOLED 패널 시장 규모(억불, 전년대비) : ('10) 12.5, 133%↑ →('11) 33.6, 169%↑→('12) 818, 143%↑

2) 수출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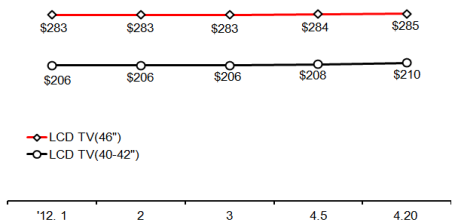
▶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2분기부터 그 동안의 부진을 털고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1) TV용 LCD 패널과 노트북PC용, 모니터용 LCD 패널 등 대부분의 제품 가격 오름세, 2) 뉴아이패드의 글로벌 판매 확대로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가 뉴아이패드용 LCD 패널 본격 공급, 3) 5월부터 런던올림픽(7월)의 3D 방송 중계에 대비한 3D TV 수요 예상, 4) 중국이 8세대 LCD 라인을 가동했으나 품질 문제로 난항, 5) 수요부진으로 인한 대만 LCD 업체의 80% 수준의 가동률(국내업체는 90%)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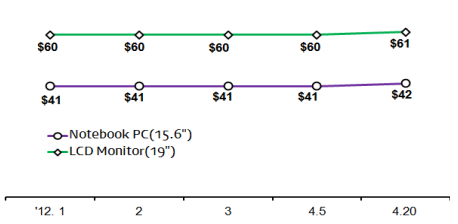
▶ 6개월 이상 보합세였던 패널가격은 소폭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런던올림픽을 앞두고 TV 업체들이 대규모 판촉행사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디스플레이 패널 가격 동향

<TV용 LCD 패널>



< IT용 패널 >



자료 : DisplaySearch, 2012.5

3) 수출 동향

▶ 4월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시장의 수요 둔화로 전년 동월대비 1.6% 감소한 26억불 수준

- LCD 패널은 런던 올림픽 및 수요시즌 대비를 위한 패널 수요 증가로 전년 동월대비 0.5% 수출 증가
- 특히, 4월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의 11.1%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품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13.5% 감소한 2.9억불 기록

▶ (지역별) 중남미(2억불, 16.8%↑), 중동(0.3억불, 24.7%↑), 인도(0.09억불, 18.1%↑) 등의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로의 수출 저조

- 실물 경기 회복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EU(3.3억불, 3.9%↓), 미국(0.1억불, 58.7%↓), 일본(0.1억불, 78.4%↓) 등 선진시장을 비롯하여 글로벌 생산 거점인 ASEAN(0.5억불, 34.3%↓), 동유럽(3.2억불, 0.1%↑)도 수출 저조
- 전체 평판디스플레이 수출의 73.3%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홍콩 포함)의 경우, 약 19억불로 전년 동월대비 0.2% 증가하며 전체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 적자폭 축소에 기여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 추이

(단위 : 억불, % : 전년 동월대비)

구분	'11.4	5	6	7	8	9	10	11	12	'12.1	2	3	4
패널	26.3	27.0	26.4	25.2	25.2	27.6	29.2	26.5	25.3	22.7	22.7	25.2	25.9
(증감률)	(△7.3)	(△7.0)	(△8.3)	(△21.2)	(△21.2)	(△3.7)	(1.0)	(△2.7)	(△4.6)	(△11.2)	(0.6)	(△6.6)	(△1.6)
부분품	3.3	3.0	3.0	2.8	2.6	2.8	2.8	3.0	2.8	2.8	2.8	2.8	2.8
(증감률)	(△9.6)	(△7.4)	(△3.8)	(△19.3)	(△15.0)	(1.2)	(4.0)	(5.3)	(△2.6)	(2.5)	(23.0)	(△10.6)	(△13.5)

4 TV

1) 시장 환경

▶ LED TV, 세계 TV 시장의 주력으로 부상

○ 올해 전체 LCD TV 시장에서 LED TV 비중이 70%를 넘기며(예상 출하량 1억 5,412만 대) TV 시장의 주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

- 전력소모와 화질 면에서 우수하고 CCFL 패널과의 가격 차 축소로 채택 확대

※ 2012년 LED TV 비중 70.1%(1억 5,412만 대), LCD TV 29.9%(6,558만 대) 전망

※ LED TV 비중(%) : ('10) 20.9 → ('11) 45.3 → ('12e) 70.1

○ TV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삼성전자·LG전자의 LED TV 판매 비중도 크게 확대

-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LED TV 판매 비중은 전체 LCD TV의 60.1%를 기록하였으며, LG전자와 Sony의 경우 각각 48.9% 및 45.6% 기록

▶ 1분기 북미 TV 시장, 국내 기업이 압도

○ 시장조사업체 NPD에 따르면, 올 1분기 북미(미국·캐나다) TV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전 부문 1위를 차지

- 부문별 삼성전자 점유율 : 평판 TV (35.1%), LCD TV (34%), LED TV (45%), PDP TV (41.6%), 3D TV(53.3%), 인터넷 기능을 갖춘 스마트 TV (47.3%) (이상 매출액기준)

※ ① 지역 고객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마케팅, ② 프리미엄 제품의 판매 비중 확대 전략 등이 북미 TV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성공 요인으로 분석

2012년 1분기 북미 평판 TV/스마트 TV 시장 점유율 (매출액 기준, %)

	삼성전자	LG전자	Sharp	Panasonic	Sony	기타
평판 TV	35.1	11.3	8.9	7.6	7.4	29.7
	삼성전자	Sharp	Panasonic	Sony	LG전자	기타
스마트 TV	47.3	15.6	12.4	11.5	9.3	3.9

자료 : NPD (중앙일보 2012.4.23. 및 서울경제 2012.4.22. 재인용)

2) 수출 여건

▶ 스페인으로 이어지는 유럽 재정 불안, 유럽 TV 수출 회복에 부정적

○ S&P는 스페인의 국가 신용등급 및 스페인 16개 은행의 신용등급을 대거 강등

- PIIGS 국가들의 순환적 재정위기 여파로 EU권 수요 회복이 불투명한 상황

- 이에 따라 對EU 공급거점(폴란드, 헝가리)에 대한 부분품 수출 부진 지속

※ 당월 對EU 수출의 46% 이상을 차지하는 폴란드의 경우 최근 수출 하락세가 매우 큼

▶ 일본, TV 사업 만회를 위해 대만 기업과의 연합 등 다양한 반격 시도

○ Sony, 부진한 TV사업 반전을 위해 대만 AUO와 손잡고 OLED TV 시장 공략 도모

- 양 사의 제휴는 일본의 OLED 원천기술·브랜드와 대만의 제조 경쟁력 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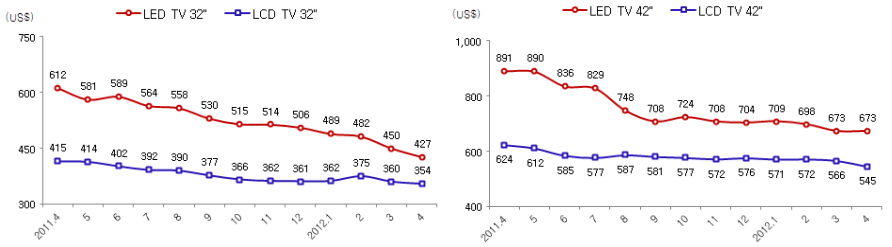
○ 게이오 대학, LCD 산업에서의 주도권 탈환을 위해 플라스틱 광섬유를 이용한 LCD 백라이트 기술 개발

※ 제조 원가는 일부 줄일 수 있으나 상용화를 위한 제반 설비 구축 등을 고려하면 그 효과는 기대치를 충족하기 어려우며, 프리미엄 제품의 경우 국내 기업들은 이미 OLED TV로 전환 예정으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소형 LED TV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며 LCD TV와의 가격 차 축소 가속화

- 전년 동월대비 가격 하락률: LED TV 42" (△24.5%), LCD TV 42" (△12.7%)

LCD TV / LED TV 가격 동향



자료 : Witsview, 2012.4.

3) 수출 동향

▶ 4월 TV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13.8% 줄어든 5.4억불로 집계

○ LCD TV 수출은 9.2%로 증가하며 성장 기조를 회복하고 있는 반면, 글로벌 수요 축소를 배경으로 PDP TV 수출 하락이 여전하고, 동월 수출의 83%를 차지한 부분품 수출이 14% 이상 하락하며 전체 TV 수출 하락

▶ (지역별) 중동(18.8%), ASEAN(11.9%), 중국(0.9%) 등에 대한 수출은 증가하였으나 EU(△38.8%), 동유럽(△16.2%), 미국(△18.8%), 중남미(△22.1%) 등에의 수출은 감소

○ 유럽권 재정 위기 지속과 수요회복 지연으로 對EU 공급 거점, 특히 對EU 수출의 46%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폴란드에 대한 부분품 수출 부진 지속

※ 對폴란드 수출 증가율(%) : ('12. 3월) △44.7 → (4월) △35.0

○ 중남미 생산거점 가운데 對브라질 수출은 전월에 이어 성장세를 기록하였으나 對중남미 수출의 74%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對멕시코 수출 하락 지속

※ 對멕시코 수출 증가율(%) : ('12. 3월) △28.8 → (4월) △27.3

▶ 선진시장 수요 부진 등을 배경으로 전년 동월대비 성장률이 수개월 째 하락세이나 전월 대비 수출액은 소폭 증가하고 있고, 시기적으로 유로 2012와 런던 올림픽 등 대형 행사가 예정되어 있어 수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점차 증가

TV(부분품 포함) 수출 추이

(단위 : 억불, % : 전년 동월대비)

구분	'11.4	5	6	7	8	9	10	11	12	'12.1	2	3	4
TV (부분품 포함)	6.3 (△8.6)	6.0 (△8.4)	6.4 (△2.0)	8.5 (22.0)	7.7 (10.2)	7.8 (18.1)	6.2 (0.1)	5.4 (△4.7)	4.3 (△17.7)	4.7 (△25.9)	5.3 (△10.1)	5.4 (△24.9)	5.4 (△13.8)
LCD TV	0.7 (33.3)	0.7 (25.7)	0.8 (11.8)	0.9 (48.5)	0.9 (59.4)	0.8 (40.2)	0.7 (35.2)	0.8 (38.0)	0.5 (△1.9)	0.6 (20.3)	0.6 (15.1)	0.6 (1.0)	0.8 (9.2)
PDP TV	0.3 (8.0)	0.3 (△9.2)	0.2 (△12.8)	0.2 (△18.6)	0.3 (16.9)	0.3 (9.8)	0.3 (△14.6)	0.2 (△30.3)	0.1 (△15.2)	0.2 (△14.2)	0.2 (△17.8)	0.2 (△51.1)	0.1 (△57.7)
TV 부분품	5.3 (△13.0)	5.0 (△11.2)	5.3 (△3.2)	7.4 (21.3)	6.5 (5.8)	6.6 (16.5)	5.2 (△2.5)	4.4 (△8.2)	3.7 (△19.3)	3.9 (△30.6)	4.6 (△11.8)	4.5 (△26.3)	4.5 (△14.2)

5 컴퓨터 및 주변기기

1) 시장 환경

▶ (PC) 감소를 예상했던 ’12년 1분기 세계 PC 출하량, 전년 동기대비 1.9% 성장

○ 지난 해 태국발 홍수로 인한 HDD 물량 부족 현상은 가격에 민감한 저가형 PC 시장에 영향을 미친 한편, 대형 업체들은 재고 관리와 SSD 채용 확대로 ‘12년 1분기 PC 생산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

○ EMEA(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이 세계 PC 시장 성장에 큰 역할을 했으며, 중국, 인도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성장세를 유지

- 반면, 미국, 캐나다 등 북미 PC 시장 규모는 태블릿PC 보급 확대에 따른 전통 PC 시장 대체로 전년 동기대비 감소세 시현

○ HP가 시장점유율 상승을 기록하며 1위를 유지한 가운데, Lenovo도 고성장 지속

2012년 1분기 지역별 PC 시장규모 및 점유율 [대수 기준]

지역	시장규모(백만 대)			시장점유율	
	‘11.1Q	‘12.1Q	전년 동기대비 성장률	‘11.1Q	‘12.1Q
Asia/Pacific	29.7	30.3	2.0%	34.1%	34.1%
EMEA(유럽, 중동, 아프리카)	26.3	28.2	6.7%	30.2%	31.6%
United States	16.1	15.5	△3.5%	18.4%	17.4%
Latin America	9.3	9.0	△3.2%	10.7%	10.1%
Japan	3.9	4.4	11.5%	4.5%	4.9%
Canada	1.8	1.6	△12.8%	2.1%	1.8%

2012년 1분기 PC 업체별 세계시장점유율 [대수 기준]

순위	업체명	전년 동기대비 성장률	‘11.1Q	‘12.1Q
1	HP	3.5%	16.9%	17.2%
2	Lenovo	28.1%	10.4%	13.1%
3	Dell	△1.6%	11.4%	11.0%
4	Acer Group	△9.2%	12.2%	10.9%
5	Asus	21.3%	5.1%	6.0%

자료 : Gartner, 2012.04

▶ (태블릿PC) ’12년 세계 태블릿PC 시장규모 전년대비 두 자릿수 성장 예상

○ Gartner에 따르면 ’12년 태블릿PC 시장은 북미시장의 태블릿PC 보급률 증가와 평균 단가 하락에 따라 ‘11년 세 자릿수 성장에서 두 자릿수 성장으로 둔화

- ’12년 태블릿PC 시장은 출하량 기준 1억 1,888만 대(전년 대비 98.1%↑), 금액 기준 504억불(75.5%↑)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

※ ’11년 세계 태블릿PC 시장규모 및 성장률 : (출하량 기준) 6,002만 대, 241%↑, (금액 기준) 304억불, 211%↑

국가별 태블릿 PC 세계시장점유율 [대수 기준]

순위	국가	시장점유율	
		‘10년	‘11년
1	미국	79.6%	74.1%
2	한국	8.1%	8.7%
3	대만	0%	6.9%
4	캐나다	0%	1.3%

자료 : SA

2) 수출 여건

▶ Google, Intel, Nokia 등 글로벌 IT업체, 잇따라 태블릿PC 출시 계획 발표

○ 태블릿PC 시장 경쟁이 강화되는 한편,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힘으로써 전체 시장 활성화 기대

○ 삼성전자가 22일 미국에 7인치 ‘갤럭시탭2’를 출시한 가운데, Google 역시 삼성, ASUS, SONY 등과 협업한 태블릿PC로 저가형 시장에 출사표

※ (Google) 구글의 첫 넥서스 태블릿PC ‘MeMO 태블릿’ 이르면 5월 출시 예정. ‘MeMO 태블릿’은 아수스가 제조한 저가형(144~199달러) 7인치 모델

※ (Intel) 중국, 브라질 등 신흥국가를 겨냥한 교육용 태블릿PC ‘스터디북’ 하반기 출시 예정. 주요 생산업체는 대만 ‘엘리트그룹 컴퓨터 시스템즈’, 중국 ‘말라타’ 등

※ (Nokia) 올해 4분기 MS의 차세대 운영체제(OS) ‘윈도8’을 탑재한 태블릿PC ‘커피탭(가칭)’ 출시 예정

※ (Apple) 연내 7인치급 아이패드 미니 출시 루머

▶ 한편, Google이 저가 태블릿PC 시장 개척의 파트너로 중국 ‘인제닉’과 ‘아이놀 전자’를 선정하면서 중국산 저가 태블릿PC가 글로벌 태블릿PC 시장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

3) 수출 동향

▶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은 컴퓨터, SSD 등 보조기억 장치 수출 확대에 힘입어 증가세 회복

○ 컴퓨터(1.0억불, 18.5%↑)는 휴대용 컴퓨터 수출 확대에 힘입어 증가세 회복

※ 휴대용컴퓨터 수출 : ('12.1) 1.0억불, 154% → (3) 0.6억불, △33.5% → (4) 0.9억불, 17.8%

○ 보조기억장치는 SSD 수출 성장(1.4억불, 99.9%↑)에 힘입어 1.5억불(14.7%↑) 기록

○ 모니터 수출 1.6억불(2.7%↑)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 증가에 기여

▶ (지역별)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의 2/3를 차지하는 중국과 미국 수출은 증가

○ 유럽(0.7억불, △17.3%) 및 일본(0.3억불, △41.3%) 向 수출 역성장, 남미(0.3억불, △29.8%) 지역으로의 컴퓨터 부품 수출이 감소한 한편,

○ 컴퓨터 부품, 보조기억장치 수출 중심의 중국(2.2억불, 24.3%↑)과 태블릿PC 등 컴퓨터 수출 중심의 미국(1.3억불, 2.9%↑) 수출은 성장을 유지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 추이

(단위 : 억불, % : 전년 동월대비)

구분	'11.4	5	6	7	8	9	10	11	12	'12.1	2	3	4
컴퓨터 및 주변기기	5.9	5.5	6.3	6.7	7.2	7.3	7.0	6.7	6.6	5.6	6.5	5.8	6.1
	(△12.3)	(△12.0)	(△3.2)	(15.8)	(35.8)	(24.6)	(△4.4)	(△14.5)	(0.7)	(△2.2)	(33.4)	(△10.1)	(2.7)
컴퓨터	0.8	0.4	1.1	1.5	2.0	2.1	1.8	1.3	0.9	1.1	1.2	0.8	1.0
	(141.9)	(△5.7)	(29.6)	(156.1)	(513.8)	(200.3)	(△0.9)	(△50.0)	(△1.7)	(138.5)	(231.6)	(△29.7)	(18.5)
주변기기	4.1	4.1	4.2	4.1	4.3	4.3	4.3	4.6	4.8	3.9	4.2	4.3	4.4
	(△21.2)	(△13.0)	(△6.5)	(△5.4)	(5.3)	(3.7)	(△1.5)	(11.5)	(11.0)	(△7.3)	(17.8)	(5.6)	(6.7)
보조기억장치	1.3	1.4	1.4	1.4	1.3	1.2	1.2	1.7	1.7	1.2	1.1	1.0	1.5
	(△28.2)	(△12.2)	(8.5)	(8.1)	(△12.9)	(△18.5)	(△21.1)	(28.6)	(30.4)	(△16.8)	(△8.0)	(1.1)	(14.7)
프린터	1.1	1.0	1.1	1.1	1.0	1.2	0.9	0.7	1.0	1.0	1.1	0.9	0.9
	(5.0)	(10.9)	(10.0)	(10.5)	(12.0)	(22.4)	(△16.5)	(△21.1)	(1.6)	(△10.4)	(28.8)	(△16.3)	(△13.5)
모니터	1.5	1.5	1.6	1.5	1.8	1.7	1.9	1.8	1.7	1.4	1.6	2.0	1.6
	(△33.0)	(△27.7)	(△27.0)	(△25.4)	(12.9)	(4.2)	(15.2)	(5.5)	(△7.4)	(△9.2)	(11.2)	(15.1)	(2.7)

6 모바일 관련 전자부품(PCB, 2차전지)

1) 시장 환경

▶ (PCB) 세계 PCB 시장은 휴대폰, PC, 네트워크 장비 등의 수요 증가로 전년대비 6.5% 성장한 590억불 수준을 형성할 전망

○ 세계 PCB 시장은 UniMicron(UMTC), Zhen Ding(폭스콘) 등 대만 업체와 Nippon Mektron, Ibiden 등 일본 업체가 세계 시장을 선도

○ 삼성전기(5위), 대덕그룹(12위) 등 국내 업체는 FPCB(Flexible PCB), MLB(Muti Layer Board), 패키지 기판 등 하이엔드 제품 경쟁력 확보를 통해 규모 확대 중

▶ 세계 2차전지 시장은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수요 견인으로 '12년 11.6%(47억셀), 10.9%로 10%이상의 성장이 지속될 전망(IIT)

○ 국내업체는 일본 업체 대비 시장진입이 늦었으나, 세트-부품 등 견고한 수직계열화와 리튬 폴리머 전지 공급에서 우위를 바탕으로 세계 1위를 유지할 전망

※ 2차전지 세계시장점유율(IIT, %) : ('06) 18.4 → ('08) 21.8 → ('10) 34.6, "세계 2위" → ('11) 40.0,"세계 1위"

2) 수출 동향

▶ PCB는 FPCB(Flexible PCB), MLB(Muti Layer Board) 등 수출 증가로 30개월 연속 전년 동월대비 수출 증가 기록

▶ 세계 1위(삼성SDI), 3위(LG화학) 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2차전지 수출은 모바일 수요 확대로 수출 증가세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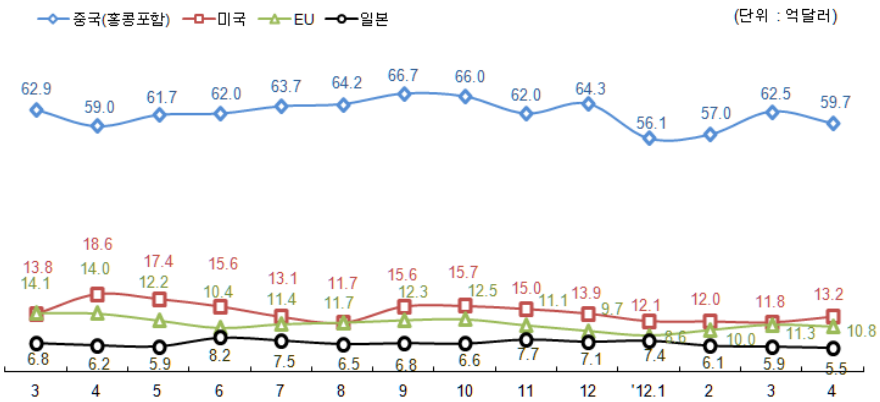
모바일 관련 전자부품 수출 추이

(단위 : 억불, % : 전년 동월대비)

구분	'11.4	5	6	7	8	9	10	11	12	'12.1	2	3	4
PCB	2.6	2.7	2.7	2.7	3.0	3.2	3.2	3.2	3.2	3.0	3.2	3.3	3.1
	(12.0)	(8.0)	(9.5)	(9.0)	(24.8)	(32.7)	(29.6)	(29.8)	(35.8)	(20.7)	(50.9)	(26.2)	(19.9)
2차전지	3.8	4.1	4.4	4.0	3.9	4.3	4.0	3.9	4.0	3.0	3.6	3.6	4.0
	(22.7)	(34.1)	(27.1)	(28.5)	(33.9)	(32.8)	(20.7)	(19.2)	(26.1)	(△6.8)	(28.3)	(△6.0)	(6.6)

2. 주요 국가별 수출 동향

주요 국가별 수출 추이



1 중국(홍콩 포함) : 59.7억불 수출, 전년 동월대비 1.2% 증가

▶ 디스플레이 패널(19.0억불, 0.2%↑), TV(0.8억불, 0.9%↑) 등 수출 증가와 휴대폰(3.8억 달러, △4.2%) 수출 감소폭 축소 등으로 對중국 수출 증가세 회복

○ 對중국(홍콩 포함) IT수출 비중은 49.6%를 차지하는 등 IT의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아 중국의 경기 향방이 향후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예상

중국(홍콩 포함) 수출 추이

(단위 : 억불, % : 전년 동월대비)

구 분		'11.4	5	6	7	8	9	10	11	12	'12.1	2	3	4
금액		59.0	61.7	62.0	63.7	64.2	66.7	66.0	62.0	64.3	56.1	57.0	62.5	59.7
(증감률)		(3.5)	(5.5)	(5.0)	(2.2)	(2.6)	(8.7)	(9.8)	(6.3)	(11.5)	(△1.2)	(15.8)	(△0.7)	(1.2)
	중국	44.3	47.4	48.1	49.6	48.7	50.5	48.9	46.8	48.5	43.0	43.5	47.2	45.8
		(△2.2)	(3.2)	(4.9)	(2.3)	(△1.0)	(7.0)	(3.1)	(2.8)	(10.3)	(△0.0)	(13.8)	(△0.3)	(3.4)
	홍콩	14.7	14.3	13.9	14.1	15.5	16.1	17.1	15.1	15.8	13.1	13.5	15.2	13.8
		(25.5)	(13.7)	(5.7)	(1.6)	(15.9)	(14.5)	(34.6)	(18.6)	(15.5)	(△4.7)	(22.6)	(△1.8)	(△5.5)

2 미국 : 13.2억불 수출, 전년 동월대비 29.0% 감소

▶ 프린터(0.3억불, 2.2%↑) 등 일부 품목 수출은 증가했으나,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휴대폰(5.4억불, △47.2%), 반도체(2.2억불, △10.1%), 디스플레이 패널(0.1억불, △58.7%) 등 수출은 감소

미국 수출 추이

(단위 : 억불, % : 전년 동월대비)

구 분	'11.4	5	6	7	8	9	10	11	12	'12.1	2	3	4
금액	18.6	17.4	15.6	13.1	11.7	15.6	15.7	15.0	13.9	12.1	12.0	11.8	13.2
(증감률)	(26.0)	(17.2)	(△0.1)	(△21.2)	(△20.5)	(△2.9)	(△18.5)	(△17.3)	(△9.1)	(△13.6)	(△4.7)	(△14.3)	(△29.0)

3 EU : 10.8억불 수출, 전년 동월대비 22.8% 감소

▶ 재정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EU는 휴대폰(1.9억불, △8.0%)을 비롯해, 반도체(1.6억불, △32.6%), 디스플레이 패널(3.3억불, △3.9%), TV부분품(0.6억불, △37.9%) 등 감소세 지속

EU 수출 추이

(단위 : 억불, % : 전년 동월대비)

구 분	'11.4	5	6	7	8	9	10	11	12	'12.1	2	3	4
금액	14.0	12.2	10.4	11.4	11.7	12.3	12.5	11.1	9.7	8.6	10.0	11.3	10.8
(증감률)	(△9.6)	(△23.2)	(△34.8)	(△25.9)	(△31.3)	(△23.4)	(△32.0)	(△32.8)	(△33.3)	(△33.1)	(△20.4)	(△20.0)	(△22.8)

4 일본 : 5.5억불 수출, 전년 동월대비 10.9% 감소

▶ 반도체(2.3억불, △5.1%), 디스플레이 패널(0.1억불, △78.4%) 수출은 감소했으나, 휴대폰 수출(1.1억불, 36.8%↑)은 증가세로 전환

일본 수출 추이

(단위 : 억불, % : 전년 동월대비)

구 분	'11.4	5	6	7	8	9	10	11	12	'12.1	2	3	4
금액	6.2	5.9	8.2	7.5	6.5	6.8	6.6	7.7	7.1	7.4	6.1	5.9	5.5
(증감률)	(7.0)	(△5.1)	(19.7)	(0.7)	(△2.6)	(6.3)	(△6.1)	(1.2)	(△10.0)	(△6.0)	(△4.0)	(△13.5)	(△10.9)

5 기타 국가

▶ ASEAN(12.1억불, 7.5%↑)은 시스템반도체 수출 호조로 증가한 반면, 중남미(6.3억불, △11.4%), 동유럽(6.5억불, △11.3%), 중동(3.7억불, △13.8%) 등 신흥시장 수출은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감소

3. 수입 및 수지 동향

▶ 4월 IT수입은 전년 동월대비 5.3% 감소한 63.1억불 기록

○ 시스템반도체(15.7억불, 5.9%↑),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정용기기(1.3억불, 28.0%↑) 등의 수입은 증가한 반면,

- 국내 업체의 국내 시장 점유율 증가 등 경쟁력 강화로 휴대폰(2.1억불, △49.7%), 컴퓨터 및 주변기기(7.8억불, △2.4%) 수입은 감소

※ 국내 업체의 내수시장점유율(Gartner, '10.4Q →'11.4Q, %) : (휴대폰) 80 → 84, (PC) 52 →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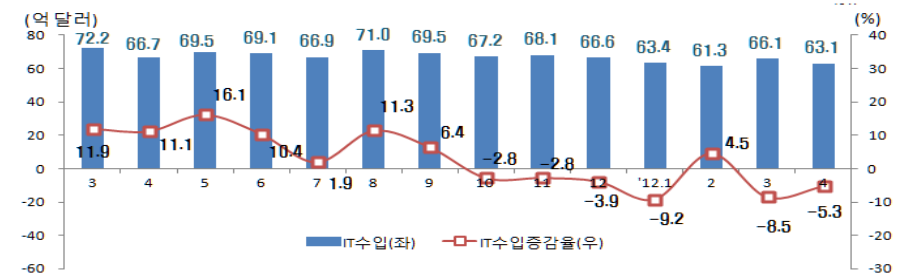
○ 일본(10.1억불, 4.8%↑), 미국(7.0억불, 13.2%↑)의 수입은 증가한 반면, 중국(홍콩 포함, 21.1억불, △15.3%), 대만(7.6억불, △12.0%) 등은 감소세 지속

'12년 4월 IT산업 주요 국가/품목 수입

(단위 : 억불, % : 전년 동월대비)

구 분	전자부품		컴퓨터 및 주변기기		IT 응용·기반 기기		전체	
전체	36.6	(△2.9)	7.8	(△2.4)	10.9	(8.8)	63.1	(△5.3)
중국(홍콩 포함)	9.9	(△18.0)	4.9	(△2.1)	2.4	(△1.8)	21.1	(△15.3)
일본	6.5	(1.3)	0.4	(10.3)	2.5	(15.1)	10.1	(4.8)
미국	4.2	(36.2)	0.5	(△2.5)	1.9	(△5.0)	7.0	(13.2)
대만	6.7	(△6.6)	0.2	(19.5)	0.1	(△27.6)	7.6	(△12.0)

최근 IT 수입 추이



▶ IT 무역수지는 57.2억불 흑자를 기록하며, 전체산업 흑자를 2배 이상 상회

IT 무역 수지

(단위 : 억불)

구 분	'11.4	5	6	7	8	9	10	11	12	'12.1	2	3	4
전체	43.5	20.5	19.1	46.5	4.1	12.3	39.0	30.0	22.6	△22.0	14.3	24.5	21.5
IT산업	66.2	63.9	63.1	63.1	59.2	70.9	70.0	61.3	59.1	49.3	55.4	59.3	57.2

○ **(품목별)** 휴대폰(12.5억불), 반도체(13.4억불), 디스플레이 패널(20.5억불)은 흑자 기조를 유지했으며, 특히 적자 대표 품목인 시스템반도체는 9개월 연속 흑자 행진 지속

주요 품목별 무역 수지

(단위 : 억불)

구 분	'11.4	5	6	7	8	9	10	11	12	'12.1	2	3	4
휴대폰	19.0	19.7	17.7	18.9	17.3	16.3	15.8	12.3	11.7	12.0	10.8	12.2	12.5
반도체	15.5	14.3	16.5	11.4	12.7	18.0	15.4	14.6	16.5	11.6	13.5	16.3	13.4
시스템반도체	△1.1	△1.2	△0.2	△1.1	1.1	4.5	2.8	2.7	5.5	1.8	2.1	3.4	1.5
패 널	20.8	21.4	20.1	19.6	19.4	21.9	23.5	20.8	19.8	17.3	17.6	19.1	20.5
TV	6.1	5.9	6.2	8.4	7.6	7.5	6.1	5.2	4.2	4.6	5.2	5.1	5.2

○ **(국가별)** 최대 흑자국인 중국(홍콩 포함, 38.5억불), EU(5.9억불), 미국(6.2억불) 모두 흑자 기조를 지속하였고, 對일 적자는 4.6억불 기록

주요 국가별 무역 수지

(단위 : 억불)

구 분	'11.4	5	6	7	8	9	10	11	12	'12.1	2	3	4
중국(홍콩)	34.0	34.9	36.0	39.8	37.4	41.4	43.1	35.4	40.9	33.5	35.3	38.4	38.5
EU	8.4	6.8	4.2	6.4	6.9	7.3	7.7	6.1	4.3	4.3	5.4	6.7	5.9
미국	12.4	10.0	9.0	6.0	4.0	7.8	7.7	7.4	6.2	4.7	4.8	3.6	6.2
일본	△3.4	△3.6	△2.3	△3.2	△4.4	△4.1	△3.8	△1.9	△4.0	△2.2	△3.5	△4.3	△4.6

4. 2012년 4월 IT산업 수출입 통계(잠정)

전체산업/IT산업 연도별 수출입 실적

(단위 : 억불, %)

구 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전체산업	IT산업	증감률	전체산업	IT산업	증감률	전체산업	IT산업
1996년	1,297.2	412.3		1,503.4	270.3		−206.2	142.0
1997년	1,361.6	414.6	0.6	1,446.2	291.3	7.8	−84.5	123.3
1998년	1,323.1	389.4	−6.1	932.8	221.2	−24.1	390.3	168.2
1999년	1,436.9	519.3	33.4	1,197.5	324.9	46.9	239.3	194.4
2000년	1,722.7	672.1	29.4	1,604.8	443.5	36.5	117.9	228.6
2001년	1,504.4	526.7	−21.6	1,411.0	355.4	−19.9	93.4	171.3
2002년	1,624.7	617.8	17.3	1,521.3	389.8	9.7	103.4	227.9
2003년	1,938.2	759.0	22.9	1,788.3	461.1	18.3	149.9	297.9
2004년	2,538.4	997.1	31.4	2,244.6	542.3	17.6	293.8	454.8
2005년	2,844.2	1,082.5	8.6	2,612.4	592.7	9.3	231.8	489.9
2006년	3,254.6	1,191.1	10.0	3,093.8	646.8	9.1	160.8	544.3
2007년	3,714.9	1,301.0	9.2	3,568.5	697.3	7.8	146.4	603.7
2008년	4,220.1	1,311.6	0.8	4,352.7	735.2	5.4	−132.7	576.4
2009년	3,635.3	1,209.5	−7.8	3,230.8	620.2	−15.6	404.5	589.3
2010년	4,663.8	1,539.4	27.3	4,252.1	756.2	21.9	411.7	783.2
2011년	5,552.1	1,566.2	1.7	5,244.1	815.4	7.8	308.0	750.8
1월	444.7	128.2	16.3	419.8	69.8	29.6	24.8	58.4
2월	384.7	111.6	4.7	364.0	58.6	13.0	20.7	53.0
3월	480.5	134.8	6.0	455.7	72.2	11.9	24.9	62.6
4월	**485.4**	**132.8**	**5.5**	**441.9**	**66.7**	**11.1**	**43.5**	**66.2**
5월	473.3	133.5	4.4	452.8	69.5	16.1	20.5	63.9
6월	467.4	132.3	1.5	448.2	69.1	10.4	19.1	63.1
7월	489.5	130.0	−4.0	443.0	66.9	1.9	46.5	63.1
8월	457.9	130.2	−2.8	453.8	71.0	11.3	4.1	59.2
9월	465.1	140.4	4.4	452.8	69.5	6.4	12.3	70.9
10월	466.1	137.2	−2.7	427.1	67.2	−2.8	39.0	70.0
11월	460.1	129.4	−4.8	430.1	68.1	−2.8	30.0	61.3
12월	477.4	125.7	−3.6	454.9	66.6	−3.9	22.6	59.1
2012년	1,812.0	475.0	−6.4	1,773.8	253.8	−5.1	38.2	221.1
1월	412.0	112.6	−12.2	434.0	63.4	−9.2	−22.0	49.3
2월	463.5	116.7	4.5	449.3	61.3	4.5	14.3	55.4
3월	473.8	125.3	−7.0	449.3	66.1	−8.5	24.5	59.3
4월	**462.6**	**120.4**	**−9.4**	**441.1**	**63.1**	**−5.3**	**21.5**	**57.2**

주요 IT 품목별 수출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11년			2012년				
				4월 당월		1~4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비중
IT 전체	156,617	1.7	100.0	12,035	-9.4	47,499	-6.4	100.0
정보통신기기	136,884	-1.3	87.4	10,173	-11.8	40,424	-9.9	85.1
○전자부품	89,134	-2.4	56.9	7,087	-4.3	28,146	-2.6	59.3
- 반도체	50,146	-1.1	32.0	3,836	-7.7	15,795	-3.6	33.3
· 메모리반도체	23,533	-17.3	15.0	1,536	-30.8	6,284	-27.1	13.2
· 시스템반도체	19,959	24.0	12.7	1,725	25.7	7,359	34.0	15.5
- 평판디스플레이	31,380	-7.1	20.0	2,590	-1.6	9,655	-4.9	20.3
- 전자관	188	-32.7	0.1	4	-81.1	17	-77.8	0.0
- 수동부품	1,605	0.4	1.0	114	-21.4	505	-8.6	1.1
- 접속부품	4,868	15.9	3.1	458	19.2	1,799	22.6	3.8
- 기타전자부품	113	43.0	0.1	9	11.4	37	21.1	0.1
○컴퓨터 및 주변기기	7,620	-1.1	4.9	608	2.7	2,403	4.4	5.1
- 컴퓨터	1,396	38.4	0.9	99	18.5	400	46.5	0.8
- 주변기기	5,069	-6.4	3.2	437	6.7	1,677	5.2	3.5
· HDD	519	-63.1	0.3	8	-86.2	35	-87.0	0.1
· 프린터	1,201	5.2	0.8	93	-13.5	387	-4.9	0.8
· 모니터	1,968	-14.7	1.3	159	2.7	656	5.1	1.4
- 컴퓨터부품	956	-12.4	0.6	61	-32.4	251	-33.6	0.5
- SW 및 콘텐츠	199	4.3	0.1	12	18.9	75	33.0	0.2
○통신 및 방송기기	27,809	0.1	17.8	1,666	-34.1	6,570	-31.7	13.8
- 통신기기	27,574	0.2	17.6	1,647	-34.3	6,490	-32.0	13.7
· 유선통신기기	1,089	-18.0	0.7	78	-26.9	315	-15.3	0.7
· 무선통신기기	26,486	1.1	16.9	1,569	-34.6	6,175	-32.7	13.0
휴대폰(부분품 포함)	25,048	0.6	16.0	1,458	-36.9	5,717	-35.2	12.0
- 방송국용 기기*	234	-5.3	0.1	20	-11.2	81	9.8	0.2
○영상 및 음향기기	10,705	2.1	6.8	749	-14.5	2,961	-15.2	6.2
- 영상기기	8,305	3.5	5.3	578	-13.8	2,228	-18.9	4.7
·TV	7,804	4.7	5.0	543	-13.8	2,085	-19.0	4.4
LCD TV	851	31.2	0.5	79	9.2	258	10.6	0.5
TV 부분품	6,625	2.6	4.2	451	-14.2	1,749	-21.1	3.7
- 음향기기	1,152	6.5	0.7	95	-8.0	393	9.7	0.8
- 기타 영상음향기기	1,248	-9.5	0.8	76	-25.8	341	-12.1	0.7
· 셋탑박스	579	-24.0	0.4	22	-54.5	118	-37.3	0.2
○광자기매체	1,618	8.8	1.0	63	-51.2	344	-38.5	0.7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19,733	29.9	12.6	1,862	6.3	7,075	20.4	14.9
○의료정밀광학기기	5,277	33.7	3.4	488	-13.6	1,894	16.0	4.0
○가정용 기기	4,762	5.6	3.0	431	-8.0	1,496	-11.4	3.1
· 냉장고	2,483	7.1	1.6	235	-8.4	765	-13.9	1.6
· 세탁기	655	-4.4	0.4	40	-32.6	165	-31.5	0.3
· 에어컨	342	19.5	0.2	47	6.0	153	-7.9	0.3
○사무용 기기 및 장비	483	8.6	0.3	43	-2.6	145	-11.7	0.3
○전기 장비	9,211	46.6	5.9	900	33.3	3,540	48.1	7.5
- 일차전지 및 축전지	4,937	20.9	3.2	419	1.0	1,490	0.9	3.1

* 수상기, 폐쇄회로TV 등 기타 방송국용기기도 일부 포함

주요 IT 품목별 수입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11년			2012년				
				4월 당월		1~4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비중
IT 전체	81,539	7.8	100.0	6,313	-5.3	25,385	-5.1	100.0
정보통신기기	69,673	7.0	85.4	5,219	-7.8	21,348	-7.4	84.1
○전자부품	46,592	5.0	57.1	3,657	-2.9	14,951	-0.6	58.9
- 반도체	32,483	4.3	39.8	2,492	-4.4	10,312	-3.2	40.6
· 메모리반도체	6,781	12.1	8.3	395	-28.7	1,784	-25.6	7.0
· 시스템반도체	19,081	3.5	23.4	1,571	5.9	6,469	7.3	25.5
- 평판디스플레이	6,691	3.0	8.2	543	-1.0	2,210	5.1	8.7
- 전자관	80	-32.6	0.1	14	93.1	27	-5.8	0.1
- 수동부품	1,828	7.1	2.2	151	-0.9	602	3.3	2.4
- 접속부품	4,101	11.3	5.0	342	-0.1	1,352	8.8	5.3
- 기타전자부품	269	102.9	0.3	25	49.8	99	75.2	0.4
○컴퓨터 및 주변기기	9,293	-0.6	11.4	775	-2.4	3,117	-3.6	12.3
- 컴퓨터	3,241	5.3	4.0	278	7.8	1,124	0.7	4.4
- 주변기기	3,642	6.2	4.5	324	4.2	1,304	6.1	5.1
· HDD	773	0.4	0.9	71	-2.1	264	1.7	1.0
· 프린터	1,230	15.4	1.5	101	-2.2	454	9.2	1.8
· 모니터	913	-9.0	1.1	94	37.5	351	7.4	1.4
- 컴퓨터부품	1,810	-19.5	2.2	118	-32.5	483	-30.9	1.9
- SW 및 콘텐츠	599	1.2	0.7	54	8.4	205	7.9	0.8
○통신 및 방송기기	9,527	38.2	11.7	476	-34.8	2,066	-37.5	8.1
- 통신기기	9,374	38.8	11.5	465	-35.7	2,020	-38.2	8.0
· 유선통신기기	2,405	59.9	2.9	135	-34.3	553	-34.0	2.2
· 무선통신기기	6,970	32.7	8.5	329	-36.2	1,467	-39.7	5.8
휴대폰(부분품 포함)	5,281	23.4	6.5	206	-49.7	959	-52.5	3.8
- 방송국용 기기*	153	12.2	0.2	12	35.1	46	30.8	0.2
○영상 및 음향기기	2,726	-5.7	3.3	245	5.4	904	-3.5	3.6
- 영상기기	836	-11.1	1.0	69	17.0	271	-11.8	1.1
·TV	198	-0.2	0.2	20	22.7	74	-2.3	0.3
LCD TV	54	208.8	0.1	9	38.8	28	13.1	0.1
TV 부분품	136	-10.3	0.2	9	-0.7	34	-31.7	0.1
- 음향기기	1,403	2.6	1.7	115	-7.3	444	-1.3	1.7
- 기타 영상음향기기	487	-16.3	0.6	61	23.1	190	5.0	0.7
· 셋탑박스	124	15.1	0.2	11	-12.4	39	-19.5	0.2
○광자기매체	1,535	-7.0	1.9	66	-52.4	310	-42.3	1.2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11,866	13.3	14.6	1,094	8.8	4,037	9.7	15.9
○의료정밀광학기기	8,029	13.1	9.8	749	10.1	2,745	9.8	10.8
○가정용 기기	1,123	24.9	1.4	125	28.0	404	27.2	1.6
· 냉장고	89	7.2	0.1	9	38.2	28	42.1	0.1
· 세탁기	57	-19.2	0.1	5	-20.2	18	-14.7	0.1
· 에어컨	92	189.2	0.1	19	207.4	46	128.4	0.2
○사무용 기기 및 장비	105	-23.1	0.1	6	-37.7	33	-12.8	0.1
○전기 장비	2,610	11.6	3.2	214	-1.9	856	3.8	3.4
- 일차전지 및 축전지	1,318	13.0	1.6	99	-14.9	390	-11.1	1.5

* 수상기, 폐쇄회로TV 등 기타 방송국용기기도 일부 포함

주요 IT 품목별 무역수지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11년			2012년			
				4월 당월			4월 누적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지
IT 전체	156,617	81,539	75,078	12,035	6,313	5,722	22,114
정보통신기기	136,884	69,673	67,211	10,173	5,219	4,954	19,076
○전자부품	89,134	46,592	42,542	7,087	3,657	3,430	13,195
- 반도체	50,146	32,483	17,663	3,836	2,492	1,345	5,484
· 메모리반도체	23,533	6,781	16,752	1,536	395	1,140	4,500
· 시스템반도체	19,959	19,081	878	1,725	1,571	154	890
- 평판디스플레이	31,380	6,691	24,690	2,590	543	2,047	7,445
- 전자관	188	80	108	4	14	-10	-10
- 수동부품	1,605	1,828	-223	114	151	-37	-97
- 접속부품	4,868	4,101	766	458	342	117	447
- 기타전자부품	113	269	-155	9	25	-16	-61
○컴퓨터 및 주변기기	7,620	9,293	-1,673	608	775	-167	-713
- 컴퓨터	1,396	3,241	-1,845	99	278	-179	-725
- 주변기기	5,069	3,642	1,427	437	324	112	373
· HDD	519	773	-254	8	71	-64	-229
· 프린터	1,201	1,230	-29	93	101	-8	-67
· 모니터	1,968	913	1,056	159	94	65	305
- 컴퓨터부품	956	1,810	-855	61	118	-58	-232
- SW 및 콘텐츠	199	599	-400	12	54	-43	-130
○통신 및 방송기기	27,809	9,527	18,282	1,666	476	1,190	4,504
- 통신기기	27,574	9,374	18,200	1,647	465	1,182	4,470
· 유선통신기기	1,089	2,405	-1,316	78	135	-57	-238
· 무선통신기기	26,486	6,970	19,516	1,569	329	1,240	4,708
휴대폰(부분품 포함)	25,048	5,281	19,767	1,458	206	1,252	4,757
- 방송국용 기기*	234	153	82	20	12	8	35
○영상 및 음향기기	10,705	2,726	7,979	749	245	504	2,057
- 영상기기	8,305	836	7,469	578	69	509	1,957
·TV	7,804	198	7,606	543	20	523	2,011
LCD TV	851	54	797	79	9	69	231
TV 부분품	6,625	136	6,489	451	9	441	1,715
- 음향기기	1,152	1,403	-251	95	115	-20	-51
- 기타 영상음향기기	1,248	487	761	76	61	15	151
· 셋탑박스	579	124	455	22	11	11	79
○광자기매체	1,618	1,535	82	63	66	-3	34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19,733	11,866	7,867	1,862	1,094	768	3,038
○의료정밀광학기기	5,277	8,029	-2,751	488	749	-260	-850
○가정용 기기	4,762	1,123	3,639	431	125	306	1,092
· 냉장고	2,483	89	2,394	235	9	227	736
· 세탁기	655	57	598	40	5	35	148
· 에어컨	342	92	250	47	19	29	107
○사무용 기기 및 장비	483	105	378	43	6	37	112
○전기 장비	9,211	2,610	6,601	900	214	686	2,685
- 일차전지 및 축전지	4,937	1,318	3,620	419	99	320	1,099

주요 지역별 IT 수출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품목	2011년			2012년				
				4월 당월		1~4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비중
전세계	156,617	1.7	100.0	12,035	-9.4	47,499	-6.4	100.0
○ 아시아	106,454	7.3	68.0	8,265	-2.2	33,273	-0.4	70.0
- 중 국	56,159	3.4	35.9	4,584	3.4	17,966	3.8	37.8
- 홍 콩	17,681	17.8	11.3	1,384	-5.5	5,563	1.4	11.7
- 일 본	8,364	6.5	5.3	554	-10.9	2,491	-8.5	5.2
- ASEAN	15,173	9.9	9.7	1,214	7.5	5,039	6.3	10.6
· 싱가폴	5,805	2.9	3.7	436	-10.5	1,870	-3.0	3.9
· 인 니	864	-9.3	0.6	73	9.7	248	-22.2	0.5
· 말 련	2,046	-15.3	1.3	152	-7.2	598	-14.6	1.3
· 태 국	1,154	1.5	0.7	98	-7.8	339	-15.7	0.7
- 대 만	6,982	8.8	4.5	417	-38.1	1,700	-32.2	3.6
- 인 도	1,682	9.4	1.1	85	-18.8	398	-26.2	0.8
○ 북미	18,871	-3.7	12.0	1,376	-29.1	5,176	-16.8	10.9
- 미 국	17,720	-4.3	11.3	1,319	-29.0	4,916	-16.7	10.4
- 캐나다	933	6.1	0.6	36	-47.9	168	-35.0	0.4
○ 유럽	16,803	-20.5	10.7	1,264	-20.7	4,745	-21.9	10.0
- EU	14,485	-22.9	9.2	1,078	-22.8	4,059	-24.0	8.5
· 영 국	1,068	-28.6	0.7	75	-21.0	291	-27.4	0.6
· 독 일	2,460	-25.5	1.6	182	-48.7	649	-28.9	1.4
· 프랑스	701	-24.8	0.4	67	12.4	247	-17.3	0.5
· 이탈리아	557	-26.2	0.4	37	-20.8	129	-52.5	0.3
- 러시아	1,337	-12.9	0.9	105	12.4	398	-2.6	0.8
○ 중동	4,393	13.3	2.8	369	-13.8	1,369	-15.3	2.9
- 사우디	599	39.5	0.4	51	-16.7	151	-39.2	0.3
- UAE	1,429	12.6	0.9	105	-13.3	405	-28.7	0.9
○ 중남미	8,435	0.2	5.4	633	-11.4	2,470	-14.8	5.2
- 브라질	2,826	16.3	1.8	247	3.6	1,007	18.1	2.1
- 멕시코	4,669	-10.0	3.0	334	-16.8	1,240	-28.8	2.6
- 칠 레	214	9.7	0.1	13	-30.2	50	-26.5	0.1
○ 대양주	1,011	-0.9	0.6	84	-11.4	303	-3.9	0.6
- 호 주	911	-3.5	0.6	76	-11.3	275	-4.3	0.6
○ 아프리카	634	-0.1	0.4	43	-21.7	163	-20.9	0.3
○ 브 릭 스	62,004	3.7	39.6	5,022	3.1	19,768	3.5	41.6

주요 지역별 IT 수입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품목	2011년			2012년				
				4월 당월		1~4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비중
전세계	81,539	7.8	100.0	6,313	-5.3	25,385	-5.1	100.0
○ 아시아	65,039	6.9	79.8	4,947	-7.6	19,890	-8.1	78.4
- 중 국	29,268	11.2	35.9	2,062	-14.2	8,675	-11.8	34.2
- 홍 콩	1,093	15.0	1.3	53	-44.3	272	-24.6	1.1
- 일 본	12,267	2.6	15.0	1,012	4.8	3,942	1.4	15.5
- ASEAN	12,158	2.5	14.9	788	-22.7	3,446	-17.3	13.6
· 싱가폴	5,563	5.9	6.8	339	-29.3	1,566	-15.7	6.2
· 인 니	446	7.4	0.5	36	-8.3	131	-19.0	0.5
· 말 련	2,734	1.7	3.4	172	-28.3	776	-17.4	3.1
· 태 국	1,514	-2.7	1.9	101	-17.6	367	-35.9	1.4
- 대 만	10,184	5.0	12.5	763	-12.0	3,268	-3.3	12.9
- 인 도	51	19.3	0.1	4	-10.4	17	20.2	0.1
○ 북미	8,816	9.3	10.8	745	15.1	3,156	24.4	12.4
- 미 국	8,428	10.0	10.3	697	13.2	2,994	24.2	11.8
- 캐나다	205	-12.7	0.3	19	2.1	60	-13.0	0.2
○ 유럽	6,677	16.5	8.2	537	-8.4	2,008	-8.7	7.9
- EU	6,225	21.2	7.6	486	-12.2	1,836	-11.0	7.2
· 영 국	462	18.3	0.6	37	-31.2	146	2.0	0.6
· 독 일	2,555	9.1	3.1	232	11.5	826	2.6	3.3
· 프랑스	649	-1.6	0.8	54	8.3	194	-12.7	0.8
· 이탈리아	261	0.2	0.3	22	0.2	80	-8.5	0.3
- 러시아	20	-77.8	0.0	4	538.1	11	151.9	0.0
○ 중동	336	-22.7	0.4	40	25.2	146	20.3	0.6
- 사우디	1	-12.5	0.0	0	-64.0	0	-55.1	0.0
- UAE	15	242.5	0.0	1	-7.2	6	97.1	0.0
○ 중남미	525	19.0	0.6	37	-4.5	142	-22.3	0.6
- 브라질	35	118.5	0.0	1	-27.1	6	23.4	0.0
- 멕시코	483	15.0	0.6	36	-3.0	136	-22.7	0.5
- 칠 레	1	-57.9	0.0	0	235.3	0	-39.6	0.0
○ 대양주	129	20.4	0.2	5	-44.9	36	-20.6	0.1
- 호 주	117	22.0	0.1	4	-49.8	33	-21.0	0.1
○ 아프리카	13	-24.1	0.0	2	234.1	6	105.5	0.0
○ 브 릭 스	29,374	11.0	36.0	2,071	-14.0	8,709	-11.6	34.3

주요 지역별 IT 수지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품목	2011년			2012년			
				4월 당월			4월 누적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지
전세계	156,617	81,539	75,078	12,035	6,313	5,722	22,114
○ 아시아	106,454	65,039	41,415	8,265	4,947	3,318	13,382
- 중 국	56,159	29,268	26,891	4,584	2,062	2,522	9,290
- 홍 콩	17,681	1,093	16,588	1,384	53	1,331	5,291
- 일 본	8,364	12,267	-3,903	554	1,012	-458	-1,450
- ASEAN	15,173	12,158	3,016	1,214	788	426	1,593
· 싱가폴	5,805	5,563	242	436	339	97	304
· 인 니	864	446	418	73	36	37	118
· 말 련	2,046	2,734	-688	152	172	-20	-177
· 태 국	1,154	1,514	-360	98	101	-3	-28
- 대 만	6,982	10,184	-3,202	417	763	-347	-1,568
- 인 도	1,682	51	1,631	85	4	81	381
○ 북미	18,871	8,816	10,055	1,376	745	631	2,020
- 미 국	17,720	8,428	9,293	1,319	697	622	1,923
- 캐나다	933	205	728	36	19	17	108
○ 유럽	16,803	6,677	10,126	1,264	537	727	2,737
- EU	14,485	6,225	8,260	1,078	486	591	2,223
· 영 국	1,068	462	606	75	37	38	145
· 독 일	2,460	2,555	-95	182	232	-50	-177
· 프랑스	701	649	51	67	54	13	53
· 이탈리아	557	261	296	37	22	15	49
- 러시아	1,337	20	1,318	105	4	101	387
○ 중동	4,393	336	4,058	369	40	329	1,223
- 사우디	599	1	598	51	0	51	150
- UAE	1,429	15	1,414	105	1	104	399
○ 중남미	8,435	525	7,910	633	37	597	2,327
- 브라질	2,826	35	2,791	247	1	247	1,001
- 멕시코	4,669	483	4,186	334	36	298	1,104
- 칠 레	214	1	213	13	0	13	49
○ 대양주	1,011	129	882	84	5	78	267
- 호 주	911	117	795	76	4	72	242
○ 아프리카	634	13	621	43	2	42	157
○ 브 릭 스	62,004	29,374	32,630	5,022	2,071	2,951	11,059